

목포대교서 경관 감상 마세요

운전자들 갖길 무단정차 교통체증·사고 우려

지난 29일 개통한 목포대교의 통행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대교 개통 이후 차량 운전자들이 목포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관을 감상하면서 교통 체증은 물론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목포경찰은 순찰차를 동원, 3.1km의 해상 교량에서 다리 구경을 나온 운전자들의 무단정차 단속에 나섰다. 운전자들은 일몰 전부터 3시간여 동안 목포대교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한복판 양쪽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1m 남짓의 갓길에 차를 세워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경찰의 정차 단속에도 위장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경관 감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목포대교는 죽교동 북항과 고하도(신외항)를 연결하는 총 연장 4.129km의 왕복 4차로이며, 국내 처음으로 '3웨이 케이블 공법'이 도입됐다. 다리 개통으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에서 신외항까지 60여 분이 걸리던 것이 40분이 단축됐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차량 운전자들이 지난 29일 개통한 목포대교에 차를 세우고 경관을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담고 있다.

“승진하려면 무안서 살아라”

郡, 인사 앞두고 관내 미거주 직원 불이익 방침... 찬반 논란

무안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592명 가운데 40%인 240여명이 이상이 무안군의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4급(서기관) 3명 중 2명, 5급(사무관) 30명 중 10명, 6급(계장) 130명 중 81명이 광주나 목포에서 자녀 교육과 문화생활 편익을 위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들 역시 주소지는 무안에 두고 있다.

지난 4·11 보궐 선거로 당선한 김철주 군수는 정기 인사에서 무안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무

안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인사가 접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혼자 생활을 하는 직원과 부부간에 거주하는 사람, 자녀와 함께 가족 전체가 거주하는 것을 차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방침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무안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지역경제 확대와 지자체 기금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과 주거지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회단체 김모(45)씨는 “무안에서 세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광주나 목포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불합리적이

다”며 “군민 대다수가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공무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시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잘못됐느냐”며 “군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행정 관련된 것만 전달하고, 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접차 직원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인사 고가에 반영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는 거주부 일제조사와 확인조사 과정에서 무안군청 직원들은 단 1명도 적발되지 않고, 주민 24만명 적발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im@

■ 세일글

“화합·소통·창의적인 의회상 정립”

임 덕 수 무안군의회의장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만장일치로 선출된 임덕수(57)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은 “화합과 소통의 의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균형적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건전한 긴장 관계를 통해 군민생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

역발전을 위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2선인 임 의장은 남악 신도시 개발 보강대책위원장과 5대 전·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성례(58)씨와 1남.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im@

미술로 종교의 벽 허문다

목포 문예회관에서 '종교친화미술전'

목포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벽을 허물고 인류의 평화를 형성화한 미술전을 열고 있다.

(사)세계미술연맹(이사장 서요한)은 전남도의 후원으로 5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종교친화미술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부산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후호를 얻었던 이 미술전은 종교 갈등에서 벗어나 사랑과 믿음, 헌신이라는 종교의 참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프로젝트다.

전시와 함께 종교학 박사이자 철학박사인 김영태 전남대 교수의 '종교관의 이해와 상생'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함께 열리고, 영암 광명원 장애우 25명으로 구성된 핸드벨 연주도 곁들여진다.

출품 작가는 불교는 서기문 전남대 교수, 원불교는 김범수 박사(장성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종교친화미술전'을 개최한다.

서요한 이사장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고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부산과 광주·목포 등지에서 전시·판매해 5000만원을 모아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부농 꿈꾸는 거베라 농민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거베라(Gerbera) 농장에서 주민들이 꽃을 손질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거베라 꽃말은 '신비', '풀수없는 수수께끼'이다. <함평군 제공>

전 북

학생들에 색다른 문화체험 제공

전주 은화학교 '사랑의 갈라 콘서트'

전주 은화학교(교장 전원길)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학생들의 문화권리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9일 '신나는 예술여행-사랑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박영국 구미 오페라단 단장과 소프라노 주선영(대구가톨릭대 교수)을 비롯한 국내 정상급 성악가 9명이 참여해 열띤 공연을 선보였다.

1부 행사는 오페라 '춘향전' 중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추려 갈라 콘서트를 공연하고, 2부 행사는 참가 단원들이 총 출연해 이태리 민요와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을

레시곡을 열창했다.

이번 초청공연은 시간·공간적인 제약으로 오페라를 접할 기회가 적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오페라'라는 장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원길 교장은 “해마다 공연을 개최하지만 이번 공연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문화공연과 품격 높은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석정 휴스파’ 6일 개장

게르마늄 온천수 노화방지·항암효과 탁월

게르마늄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고창 웰파크시티 석정 휴스파'(사)가 오는 6일 개장한다.

1990년대 국내 최초의 게르마늄 온천수로 사랑을 받았던 석정온천이 폐쇄한지 10여년 만에 '고창 웰파크시티 석정 휴스파'(이하 석정 휴스파)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석정 휴스파는 변화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가족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즐거운 스파로 재탄생했다.

석정 휴스파는 게르마늄 성분을 다량 함유한 온천수로 노화방지와 암치유 및 예방, 각종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정휴스파는 남녀 온천탕과 노천탕, 바데탕, 키즈 풀, 수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아이들을 위한 유아반과 수영장, 전용 휴게실 등을

구비해 온 가족이 다함께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25일 개장 예정인 실외 스파에는 유스풀과 이벤트 탕, 족포탕 등 다양한 체험스파를 꾸며 온천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창 웰파크시티 석정 휴스파 관계자는 “석정 휴스파에서의 즐거움과 함께 인근 편백나무 숲 산책, 단지내 '석정 웰파크CC'(18홀) 골프, 최고 품질의 고창 황토와 면역증진에 탁월한



편백나무로 건축된 '석정 힐링 카운티'(황토 건강센터)에서의 달콤한 휴식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북경찰, 여름 출장파출소 12곳 선정

전북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여름 출장파출소를 12곳을 선정했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과 유명 피서지의 치안유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두달간 도내 해수욕장과 하천 등 주요 피서지 12개소에서 여름출장파출소를 운영한

다.

이에 경찰은 군산 선유도와 부안 격포·변산, 고창 구시포 등 도내 해수욕장 6곳과 남원 뱀사골과 무주 구천동, 진안 윤일암반 일암 등 하천 6곳에 경력과 구명장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연극으로 만나는 월명동' 개강

극단 '동담에'와 월명동 주민센터는 '2012년도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알리기 문화콘서트 2탄, 연극으로 만나는 월명동 근대문화-군산화랑극단'을 개강한다.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북 최초

의 극장인 '군산화'와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군산극장'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근대문화 전 문가 강의·토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근대문화유산 현장답사 ▲연극 기초 훈련 등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남원시는 최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도내 대학교수, 언론인, 이주여성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행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정책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6곳 선정

순창군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값싼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 6개소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13개업소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와 평가, 자

체심의를 함께 전북도 및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대정마루, 우리네분식, 한우직판장, 새식당, 맛내미미용방, 미연미용실 등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간기능 개선 음료 기술 민간 이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제품 블랙베리 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 육종기술로 개발한 신제품 블랙베리(품종명 메이플)를 이용한 간기능 개선음료 제조기술을 민간 업체에 이전했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최근 간기능 개선음료 제조기술을 ㈜혜베에 이전하고, 정책 기술료 1억원에 5년동안 매출액의 3.0%를 경상 기술료로 받는다.

이전하는 기술은 첨단방사선연구소 정일민 박사팀이 지난해 5월 개발한 '간 기능 보호 및 개선 기능성 음료 제조기술'이다.

정 박사팀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해 간기능 보호성분인 'C3G'

가 기존 블랙베리의 2.3배, 오디의 3배 높은 신제품 블랙베리를 개발해 냈다.

연구진이 급성 간독성 유발물질인 사염화탄소(CCl₄)를 투여한 실험군 쥐에 신제품 블랙베리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추출물을 주입하지 않은 대조군 쥐에 비해 실험군 쥐의 간 손상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방사선연구소 관계자는 “㈜혜베는 기술을 이전받아 간 기능 개선음료 드링크제를 판매할 예정이며, 숙취해소 효능이 입증되면 숙취해소 음료로도 제품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 블랙베리류를 이용, 제품의 다양화를 비롯한 헬스케어 소재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하고 지속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순창 편백숲에서 명상을

최근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건강장수연구소 편백숲에서 70여명의 노후설계교육생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